



원로와의 대담

“ 과학기술투자 너무 빈약해요
체육엔 엄청난 돈을 쓰면서 ”

서울대 지질학과 창설 주역

金玉準 박사

대담 / 朴澤奎 (건국대 이과대학장/본지 편집위원장)

선생님 반갑습니다. 매우 건강한 모습이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건강비결은 지질탐사

이제 60대에 접어든 서울대 제자인 박희안교수(서울대 자연대 지질학과 교수)와 박노영(자원연구소)의 소개로 특수건설공업주식회사(김종은사장)에 고문으로 나가고 있어요. 특별하게 하는 운동은 없지만 옛날에 팔도강산 방방곡곡을 지질탐사한다고 걸어서 돌아다녔던 게 그동안의 건강의 비결이라 할 수 있겠지요. 아침에 집안에서 20분 정도 가벼운

체조를 하고 있고 요즘도 가끔적이면 도보로 다니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서는 강릉태생으로 그 당시 입학이 매우 어려웠던 제1고보(현 경기고교)를 다니신 수재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제대서 광산 전공

저는 강원도 강릉에서 4남매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비교적 개화된 집안이었고 조부께서 상업을 하셔서 여유있는 생활을 누린 편이에요. 제가 6년제의 강릉공립보통학교를 30년도에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제1고보에 다니

게 된 것도 누님들의 도움이 컸어요. 큰누님이 서울 이화여고를 졸업했고 둘째누님은 이화전문을 졸업하였지요. 무교동에서 누님들과 함께 하숙을 했는데 큰누님이 7년이나 연상이어서 서울생활이 부모님슬하와 다름없이 편안했습니다. 아현동에서 안국동 학교까지 전차통학을 했는데 한문, 수학교사만 한국인이었고 나머지교사는 모두 일본인이었어요. 국민학교에 다닐 때는 줄곧 1등을 했으나 제1고보 재학시절에는 공부벌레라는 소리는 듣지 못했어요. 35년도에 5년제의 이 학교를 졸업하고 일본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와세다대학 문과에 진학하고 싶었는데 집안에서 단호하게 반대해 공여지책으로 일단 아끼다 광산전문학교에 입학원서를 제출했어요. 내 실력으로는 이 광산전문학교에 합격할 수 없는 게 뻔한 일이었고 그래서 낙방하면 와세다에 응시할 생각이었어요. 오히려 낙방되는 것을 바라는 심정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합격하여 입학했습니다. 이 아끼다광산전문학교에는 채광 야금, 연료, 기계 등 4개학과가 있었는데 당시 채광이 붐을 이루고 있었던 시절이라 시대조류를 따라 이 학과를 택했어요. 한국인선배가 3명뿐인 이 학교를 1938년에 졸업, 일본에 있는 후루카와(古河) 광업주식회사의 아시오도장(腰銅山)이라는 구리광산에서 채광기사로 3년간 근무했습니다. 전부 일본인뿐인 이 광산은 규모가 매우 컸지만 기사로서의 근무조건은 매우 나쁜 편이었어요. 아침에 광산노무자들이 배정되어서 갱내에 들어가면 채광기사가 그 다음에 갱내에 들어가고 오후 4시쯤 광부들이 나오기 전에 나오게 돼 있었습니다. 지하 깊숙한 갱내에서 근무하면서 점심식사도 갱속에서 하고 모든 일을 갱내에서 처리하므로 고달픈 생활의 연속이었어요. 낮이 긴 여름철에는 그래도 햇빛을 보지만 낮이 짧은 늦가을부터 봄까지는 해구경을 전혀 못하는 생활이었습니다. 당시 미혼이어서 그나마 참고 견디며 3년을 버텨왔는데 혈기왕성한 젊은 시절에 눈에 거슬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같은 회사에 근무하고 지질학과 출신의 일본인 기사들은 갱내에 들어오긴 하는데 오전 11시쯤 들어와서

는 망치로 몇번 두드려보고는 금방 갱밖으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부럽기도 하고 심기가 불편하던 차에 동북대 출신의 일본인 동료들이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에 진학하라고 부추겨서 동북대에 응시했습니다. 동북제대 이학부 암석광물 광산학교실에 입학, 43년 9월에 졸업했습니다. 세계 제2차대전이란 창일 때였으나 이공계통이었으므로 징집당하지 않고 닛테쓰(日鐵)공업주식회사 서울사무소에서 지질기사로 근무했는데 이때 서울사무소에도 한국인은 없었어요.



◇체육분야에 비해 과학기술분야의 투자가 너무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는 김용준 박사(左)가 인터뷰에 앞서朴秉진위원장과 포즈를 취했다.

화제를 바꾸어서 가족이야기를 들려주시십시오.

결혼 51년...2남2녀

내자(李仁英여사)는 당시 이화여전 기사과 학생으로 고향이 황해도 해주였는데 장인은 세브란스출신 의사로서 제 고향인 강릉에서 개업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것이 인연이 돼서 43년에 결혼했고 비교적 평탄한 가정생활을 했습니다. 금년이 결혼 51년째로 그때 정동예배당(현 정동교회)에서 서양식으로 결혼식을 올렸는데 내자는

독실한 기독교가정에서 태어난 교인이예요. 저도 요새는 열심히 교회에 나갑니다. 2남2녀를 두었는데 장녀 玲子(미국거주), 장남 榮桓(49·미국거주 컴퓨터회사 경영), 차남 榮伯(46·미국거주), 차녀 玲美(44·건국대 의과대 金民熙교수 부인), 그리고 손자, 손녀 모두 6명이지요.

선생님께서 서울대에 지질학과를 창설하셨고 그후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해에도미하셨는데 그때를 회고하신다면...

美 유학땀 접시뒹기도

46년 11월부터 서울대에 근무했는데 그 이듬해 손치무교수와 함께 지질학과를 창설했지요. 지금은 정년퇴직한 정봉일교수(서울대 명예교수)도 제자입니다. 서울대 조교수로 재직하던 49년에 게리오(Gario)장학금(패전 일본을 돕기 위해서 미국에 설립된 재단)을 받아 콜로라도대학교 Colorado school of Mines 대학원 지질학과에 입학했어요. 당시 장학생 선발시험을 거쳤으며 이 대학에서 2년반 공부했는데 이 장학금이 2년짜리여서 2년 지나니 지원이 종료되더군요. 다시 국무성 장학금을 신청해서 받았습

니다. 6개월동안은 장학금 혜택을 못받아 접시닻기 등 아르바이트를 했지요. 당시 막내가 겨우 세살때였는데 서울의 가족들 생활은 본가와 친정의 도움을 받으면서 아내가 꾸렸습니다. 아내와 가족들에게 미안함과 감사한 마음이 매우 큼니다. 그래도 국무성 장학금을 받게 되어 6.25를 전후한 5년만에 걸친 미국 유학생살이 순탄한 편이었어요.

제 개인적인 기억으로도 용산구 남영동에 있었던 지질광물연구소가 50년대 중반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연구소로는 비교적 시설이 갖춰져 있었고 더욱이 지질학과 출신들의 일자리로서 크게 환영받았던 곳이었다고 생각합니다.

55년 지질광물연구소장에

콜로라도대학교에서 지질학 박사학위를 받고 54년 12월말에 귀국했습니다. 그런데 뉴욕에서 만났던 최규남총장께서 서울대에 꼭 돌아오라고 했지만 국립대 교수로 해외에 나간 경우라 2년 지나니 후임으로 다른 교수가 이미 채용되어 있었지요. 최총장께서 자리를 만들어서 대우교수가 되었습니다. 아마 근무는 55년 3월부터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질학계에 계신 여러분들이 지질 연구소를 재건하라고 권유해서 55년 11월에 지질광물연구소 소장으로 부임했습니다. 남영동에 2층집을 얻었는데 6.25전쟁때 좋은 시설, 장서 그리고 많은 연구인력을 잃었지요. 소장으로 취임하니 지질계통 1명, 선광계통 1명, 그리고 서무과직원 2~3명 등 합쳐보아야 모두 5~6명뿐이었어요.

유솜(USOM) 당국과 교섭해서 2백여만불을 지원받는데 성공했지요. 기

자재, 도서 및 연구시설을 대량 들여오고 서울대 지질학과 출신들을 임시직으로 채용, 그후 정식직원으로 발탁해서 연구와 지질탐사 등에 전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말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하는 기분으로 초창기 많은 분들이 노력했어요. 62년 1월까지 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선생님의 연구업적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석회석 조사 등 큰 업적

중요한 연구라고 한다면 57년에 조사연구용 아파치호를 빌려와 자력으로 방사능을 측정할 것을 꿈꿀 수 있지요. 석회석조사를 해서 시멘트공업발전의 기초를 닦는 데 기여했다고 자부합니다. 건설사업에 필수적인 시멘트 생산의 기본이 되는 원료가 석회석인데 이 석회석의 매장지역, 매장량을 조사 산출하는 작업은 국가적으로 매우 긴요한 사업이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의 탄전(炭田), 지질도폭 광상조사를 전국규모로 계통적으로 실시해서 오늘날까지 계속 간행물이 발간되고 있어요. 또한 화강암연대측정을 통해 불국사의 화강암이 전국적으로 분포된 화강암인 대보(大寶)와는 다른 시대의 것이라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옛날에는 동일한 것으로 보았는데)

한편, 62년에 지질조사소를 그만두고 한국자원조사소라는 사설기관을 설립, 4~5년간 대표로 일하며 지질광상조사 용역을 맡았어요. 제주도 지하수 조사를 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선생님은 연세대 지질학과도 설립하셨고 이과대학장을 지내셨으며 광산지질학회설

립에도 관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산지질학회 창설도

67년 당시 연세대 부총장인 장기원박사가 일본 동북대 선배였던 관계로 연세대에 지질학과를 설립할 것을 권유해서 결국 지질학과가 창설됐고 후배였던 이대성교수, 윤석규교수가 먼저 초빙돼 가고 나는 68년부터 81년 정년 퇴직할 때까지 연세대에 봉직하면서 이과대학장을 맡기도 했지요.

박동길박사와 함께 대한지질학회를 설립했는데 4대회장 손치무박사에 뒤이어 임기 2년의 회장을 3회에 걸쳐 맡았습니다. 68년에 광산지질학회를 창설하려고 했더니 주위에서 강력하게 반대하더군요. 그런데 학문분야별로 학회를 새로 창립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우겨서 광산지질학회를 창립하여 선배들을 회장으로 모시고 내가 3대회장을 지냈습니다. 학회가 그동안 많이 성장했는데 금년부터는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로 개명했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과학기술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과 좌우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과학기술진흥을 강조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리 많은 실적을 거둔 것 같지 않아요. 운동에는 정말기가 막히게 엄청난 돈을 쓰는데 과학기술분야의 투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좌우명이라면 정직하게 살자, 남에게 나쁜 일 안하고 폐를 끼치지 말자, 선하게 살자입니다.

선생님 장시간 감사합니다. 항상 다정한 미소를 잃지 마시고 후학들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